

“드론까지 사용할 줄이야” ‘송·송 결혼식’ 철통보안 뚫은 中 언론

현장 상황 인터넷 실시간 중계

사진·영상 SNS 등 속속 전파

“이제는 스마트폰만이 문제가 아니고 드론을 조심해야...”

한류스타 송중기-송혜교 결혼식의 철통보안 원칙이 중국 언론의 드론을 이용한 도둑 촬영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의 힘 앞에 맥없이 뚫렸다.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열린 한류스타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 공식 사진이 배포된 것은 당일 밤 10시였다. 결혼식이 오후 4시에 시작했으나 6시간이 지난 후였다.

하지만 결혼식 시작 2시간 전부터 ‘봉황망’(ifeng.com) ‘바이두’ ‘싱원제미’ 등 많은 중국 매체들은 인터넷 사이트들 통해 결혼식 리허설 장면과 사진 촬영 장면을 생중계하고 있었다.

한국 팬들은 이 세기의 결혼식을 ‘코빼기’도 보지 못하고 있는 시간. 중국에서는 실시간으로 현장의 상황이 중계되고 있었다.

중국 매체는 생중계를 하면서 해상까지 결들였고,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사이트에는 영상을 조각조각 잘라 서비스하는 클립 서비스가 계속 올라왔다.

현장에는 드론 2~3대가 돌아다녔다. 신랑 신부 소속사는 예상장인 영빈관의 정문을 통제했지만 예식이 영빈관 뒤편 야외에서 진행된 까닭에 드론으로 촬영이 가능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는 다 주최측의 허가를 받지 않은 ‘도둑 촬영’이었다.

송중기의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는 1일 “예식을 앞두고 중국 매체 여러 곳에서 여러 루트를 통해 생중계 제안이 들어왔다”며 “외부 비공개로 조용히 치르자는 게 신랑 신부의 뜻이었기에 당연히 모두 거절했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중국 매체가 생중계 대가로 150억 원을 제시했고, 이를 거절당하자 도둑 촬영을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블러썸은 “일체 모든 협찬을 거절한 상태였고 생중계를 가지고 돈 얘기를 하지도 않았다”며 “생중계 제안 자체를 처음부터 다 거절했기 때문에 금액 제안이 온 것도 없다. 돈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장쑤이는 송중기-송혜교와 함께 찍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결국 중국 매체는 처음부터 허락을 받은 안 받은 ‘태양의 후예’가 낳은 커플인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을 생중계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블러썸은 “드론이 뜰 것이라는 것은 결혼식 전날에 예감했다”며 “호텔 측에서 드론이 돌아다닌다고 알려줘서 결혼식 촬영 여행연습을 하는구나 직감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누가 드론을 띄운 지 몰라 단속을 할 수가 없었다”며 “문제는 중국 매체들이 이렇게 도둑 촬영을 한 것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조치를 취하기 힘들다는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드론 촬영을 통해 중계된 송중기-송혜교의 결혼식은 10월31일 웨이보 화제 분야 실시간 검색 순위에서 당일 오후 6시(현지시간) 기준 조회 수가 1억6천만 건으로 1위를 차지했다. 바이두 등 중국 매체들이 몰래 생중계로 보도하면서 생중계 채팅방에는 597만명이 접속해 북새통을 이뤘다.

중국 매체가 ‘도둑 촬영’을 했다면, 하객으로 참석한 중국 스타 장쑤이(章子怡)는 공식적으로 결혼식 사진을 서비스(?)했다. 장쑤이는 송중기-송혜교와 함께 찍은 선명한 사진, 결혼식 장면을 자신의 SNS에 ‘신속’하게 올렸고 이는 ‘장쑤이 제공 사진’이 돼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국내 언론도 사진공동취재단을 구성해 높은 곳, 먼발치에서 결혼식을 어렵게 카

메라에 담았지만 대부분 초점이 나갔거나 신랑 신부의 얼굴이 제대로 잡히지 않은 사진이었다. 접근성이 차단된 탓에 벌어진 안타까운 결과였다.

중국 매체의 파위는 야외 결혼식에 국한되지 않았다. 결혼식에 이어 영빈관 2층 실내에서 진행된 피로연 현장도 이날 밤 8~9시 사이 중국 SNS에 사진과 영상 클립 형태로 퍼져나갔다.

‘봉황망’과 ‘바이두’ 등에서도 피로연 클립 영상을 감상할 수 있었으며, 일부 국내 언론은 ‘중국 MC 척’의 SNS에 올라온 사진과 영상이라며 이를 퍼다 보도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지만 송중기와 송혜교의 소속사는 밤 10시 단 5장의 사진만 배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한 연에 관계자는 “국내외 이목이 집중된 세기의 결혼식인데 포토타임과 기자회견을 가졌더라면 중국의 도둑 촬영으로 인한 허탈감도 덜하지 않았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블러썸 관계자는 “예식을 조용히 치르겠다는 신랑 신부의 생각이 확고해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다”며 “현장에서도 사진이나 영상을 SNS에 올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만 통제가 쉽지 않았다. 이제는 중국 매체의 드론 촬영까지 조심해야 하는 상황이 돼 당황스럽다”며 혀를 내둘렀다. /연합뉴스

‘LPG’ 한수연, 한화 투수 김혁민과 결혼

5년간 교제 ... 12월 화촉

그룹 LPG 출신 한수연(32)과 한화 이글스 투수 김혁민(30)이 12월 화촉을 밝힌다.

1일 가요계에 따르면 연상연하 커플인 두 사람은 5년간의 교제 끝에 12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록아트를 그랜드볼룸에서 백년가약을 맺는다.

한수연은 연합뉴스의 확인 전화에 “지인의 소개로 알게 돼 5년간 교제했다”며 “2살 어리지만 자상하고 든든한 면모에 반해 평생 믿고 의지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프러포즈를 해줬는데 그날 감동해서 많이 울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은 2년 전부터 하려 했는데 올해가 여건상 좋을 것 같아 날을 잡았다”며 “태극 푸켓으로 신혼여행을 다녀와 대전에 신집살림을 마련한다”고 덧붙였다.

한수연은 LPG가 멤버 전원을 교체하고 새 출발 한 2009년 LPG 2기로 데뷔했다. 팀 활동을 하면서 2010년 ‘루시’라는 예명으로 솔로 음반을 냈으며 2013년 27가 해체하자 뮤지컬 배우로 활동했다. 현재 K소핑의 소핑호스트로 활동 중이다. /연합뉴스



김혁민·한수연

김혁민은 2007년 한화 이글스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데뷔한 오른손 투수로 2014년 시즌을 마치고 상무에 입대해 군 복무를 한 뒤 지난해 말 한화에 복귀했다. 올해는 부상으로 퓨처스(2군)리그에서만 던졌고 1군 무대에서는 2014년까지 통산 8시즌 동안 194경기에 등판해 30승 59패 2세이브, 평균자책점 5.72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김생민이 알려주는 ‘가성비 최고’ 여행 코스

tvN ‘짬내투어’ 25일 첫 방영

박명수·박나래 등 출연

연예계 ‘대세 짬돌이’ 김생민(사진)이 ‘가성비 최고’의 여행 코스들을 소개한다. tvN은 오는 25일 오후 10시 20분 김생민이 주인공으로 나서는 예능 프로그램 ‘짬내투어’를 첫 방송한다고 1일 소개했다.

프로그램에서는 김생민과 함께 개그맨 박명수, 박나래, 가수 정준영, 배우 여희현이 팀을 이뤄 정해진 예산을 들고 해외 자유 여행을 떠난다.

이들은 여행의 하루씩 맡아 각자 개성을 담은 일정을 설계한다. 모든 여행이 끝나면



투표를 통해 가장 가성비 좋은 일정을 설계한 출연자가 우승을 거머쥔다.

제작진은 “나만의 ‘작은 사치’를 위해 현실적으로 타협하는 여행 팀이 많은데 그런 정보들을 생생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5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휴먼 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5 아침이 좋다	00 MBC 뉴스투데이 20 아시아의 전통신장 50 마이 리틀 베이비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대망	00 다큐멘터리 3일 스페셜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다큐멘터리 3일	50 병원선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역사저널 그날 50 UHD 한식	50 내 남자의 비밀 (재)		00 애니캐리리 30 고행이 보인다
12	00 KBS 뉴스 12 30 영상앨범 산		00 밤상 차리는 남자 (재)	00 SBS 12 뉴스 50 지식 토크쇼 55 톡톡 보원설계
1	00 사랑의 가족 50 평화 중계올림픽 G-100 특집 서포터즈 발대식			55 닥터 365
2		00 생생정보 스페셜 50 자동차부품상 위키 2	40 똑?똑! 키즈스쿨	00 뉴스브리핑
3		20 TV 유치원 50 여유만만	10 뽀글아 사랑해 (재) 40 헬로킴지 놀라운 자연 이야기 2	
4	00 4시 뉴스집중		10 허끝으로 만나는 중국 스페셜	00 여행배틀 로그인 코리아 (재) 55 지식 토크쇼
5	00 KBS 뉴스 5 10 공감다큐, 사람 30 팔도발상 스페셜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토이캡 15 터닝메카드 R 30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00 MBC 이브닝 뉴스 40 병원선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UHD 한식	30 2TV 생생정보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00 kbc특집방송! 힐링 여수야
7	00 KBS 뉴스7 35 한국인의 밥상	50 내 남자의 비밀	05 천년의 전라도 스페셜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토크지각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닥터 하우스	35 신비한TV 서프라이즈 스페셜 45 세상기록 48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이런일이
9	00 KBS 뉴스9 40 KBS 스페셜 -고령화 기획 2부작			
10	30 KBS 뉴스라인	00 매드독	00 병원선	00 당신이 잠든 사이에
11	00 청소년드라마 <안단테>	10 고백부부	10 MBC 스페셜	10 자기야-백년손님
12	00 네트워킹 문화특선 올댓뮤직 50 인간극장 스페셜	15 세상의 모든 다큐	10 TV예술무대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통일 미리보기 〈북한의 교통수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인보우 루비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덩동명 유치원 1~2 08:30 똑딱맨 08:45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쥬 09:15 엄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다문화 고부 열전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황태감정강정과 바지락무침)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장수의 비밀 〈당신과 함께라면〉 12:40 지식체널e 12:45 명의(재) 13:40 다크영화 - 김 위외 인생 〈나무와 두 남자〉 14:30 호기심나라 오키도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키 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다!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명 유치원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재)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놀자고(재) 19:30 EBS 뉴스 19:5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20:40 다크 오늘 20:50 세계테마기행 〈내 인생에 꼭 한번은 아이슬란드 북위의 시간을 살다 미바튼〉 21:30 한국기행 〈가를 밭도둑을 잡아라 - 가을 왔'새우'〉 21:50 과학 다크 비온드 〈꿈의 과학, 어젯밤 꿈이 가리키는 것〉 22:45 다문화 고부열전 23:35 불랑시니아클럽 24:05 지식체널e 24:10 스페이스 공감 1,2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1월 2일(음 9월 14일 쯤이)	
 子	48년생 행운이 따르는 길정이 보인다. 60년생 지난날의 구상이 오늘에 이르러서야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 72년생 서로 입장을 바꿀놓고 생각해 봐야 할 일이다. 84년생 필요하다면 소금해서 적용해도 아무 탈이 없느니라. 행운의 숫자 : 04, 86	 午	42년생 인지하지 못 하였던 것에 대한 비중이 커진다. 54년생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이다. 66년생 계획을 잘 세워야 한다. 78년생 끝까지 유지하지 않으면 아니 되겠다. 90년생 경험에서 우리나라는 지혜가 요구 된다. 행운의 숫자 : 21, 86
 丑	49년생 다소 귀찮더라도 일일이 확인한다. 61년생 몇 번이고 반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할 때이다. 73년생 무리하게 하지 말고 그 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85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크다. 행운의 숫자 : 29, 26	 未	43년생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리이다. 55년생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겠다. 67년생 생각에 따라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79년생 때가 되면 전연 다른 국량이 된다. 91년생 확실히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58, 50
 寅	50년생 함들이지 않고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형태다. 62년생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형세임을 알아야 한다. 74년생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이 명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86년생 내세운다면 서로 맞설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른다. 행운의 숫자 : 82, 75	 申	44년생 구구일모의 기회이니 놓치지 않는 것이 좋다. 56년생 욕심이 지나치다면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니 목적인 미끼를 주의하자. 68년생 그동안 품어 왔던 뜻을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80년생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행운의 숫자 : 42, 14
 卯	51년생 집착은 좋은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다. 63년생 약진하는 길목에 들어서고 있느니라. 75년생 표면적인 현상을 무시하고 당당하게 임하라. 87년생 원칙대로 준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위험이 따르지 않는다. 행운의 숫자 : 53, 71	 酉	45년생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부분이 보이거든 즉시 보완하라. 57년생 길운이 순조로움을 부르지 저절로 흥겨운 코트레가 나올 것이다. 69년생 행운을 이끄는 길성이 비추고 있다. 81년생 하등에 우려했 바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22, 16
 辰	52년생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64년생 지금 처리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의 차이를 볼 수밖에 없다. 76년생 상대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88년생 노출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도다. 행운의 숫자 : 62, 58	 戌	46년생 어려움이 있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다보면 길정을 부르게 마련이니라. 58년생 참신한 변화를 모색할 수도 있다. 70년생 부담감을 느낀다면 자체하는 것이 합당하다. 82년생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활동하자. 행운의 숫자 : 61, 13
 巳	53년생 시기상조이니 마음을 비우고 대세를 관망해야 할 시기에 도달했다. 65년생 강력한 기운이 감돌면서 영향력을 가지게 되리라. 77년생 지체하지 않는다면 낭패를 본다. 89년생 말없이 조용히 추진하는 것이 성공률을 높인다. 행운의 숫자 : 46, 45	 亥	47년생 점점 영향력이 커지는 대국에 놓여 있으나 이별 패일수록 겸손과 덕망이 중함을 알라. 59년생 새로운 자원을 인식하게 되리라. 71년생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83년생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는 활로가 보이리라. 행운의 숫자 : 09, 7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